

2006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않은 것은?

1 번부터 6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아닌 것은? [1 점]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 7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언어 영역

자료 활용 및 개요 완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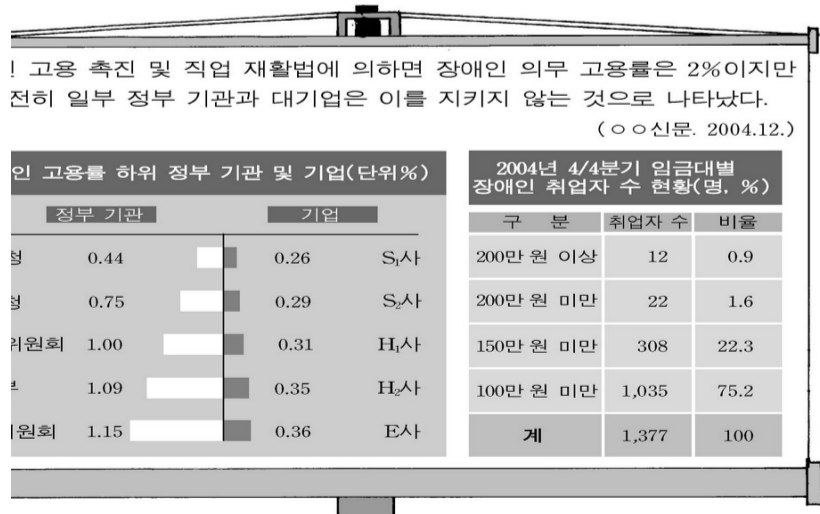
않은 것은?
[3 점]

<자료>

- ㉠ 2004 년도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가 20 만 건에 달했다.
- ㉡ 한 남성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방과 사생활 침해에 못 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 ㉢ 최근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누리꾼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 ㉣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원인은 익명성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특성, 즉 비대면성 (? ㄹ ??) 에 있으므로 익명성 해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적 처벌 근거는 이미 존재하나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언어 영역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않은 것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나라 곳곳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 개발'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연에 손을 대는 일은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손실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이에 대하여 다른 쪽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자연에 손을 대어 편의 시설을 만들면 지금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나중에는 □

인간이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면 나중엔 어떤 결과가 생길지 □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면 자연 재해의 특성상 자칫 인류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훗날 다음 세대에게 닥친다면,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애먼 사람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 두 주장 모두 편향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

인간이 편하기 위하여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나중에 인류에게 재앙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막상 그 대상인 자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자연물, 더 나아가 자연 환경 전체도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권리의 범위가 인간에서 자연으로 □ 증대되는 셈이다.

없는 것은?



언어 영역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 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고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입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부용(??)을 걷어 놓고 공작(ㄸ)을 돌려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 배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은 물론이고 제도(??)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수(??)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언어 영역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점]

조선 왕조는 유교 정치를 표방하여 오래도록 문(?)을 숭상하였다. 규장각은 이러한 전통 아래 정조(??) 때 왕실 도서관 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여, 나중에 정책 연구의 기능까지 발휘한 특별 기구였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1776년)에 창설되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발족이 아니라, 정조가 동궁(比十) 시절에 경희궁에 살면서 설치·운영해 온 기구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창덕궁 후원의 연지(??) 북쪽 언덕에 이층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고 이름을 주합루(???)라 하였

다. 이 건물 1층의 이름을 처음에는 어제존각(???)이라 하였다가 얼마 후 규장각(kl?)으로 개칭하여 자신의 왕위(??), 즉 국왕으로서의 위엄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규장'이란 본래 제왕이 지은 시문이나 조칙 등의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원래 규장각은 □

국왕 관련 자료들을 봉안하는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정조가 직접 정사를 주재하면서부터 정치적 선도 기구로 일신되었다. 이때부터 규장각의 제학(??) 이하 관리 6인으로 하여금 다른 관직을 겸하게 하였다. 이들 대부분을 홍문관(??)의 관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

이들 중심으로 근시직(??), 즉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을 일원화하다시피 하였다. 이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을 뿐 아니라, □ 과거 시험과 조계문신(??) 제도 등을 함께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반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비행을 저지른 관원을 탄핵하는 권한도 가졌다.

문(?)을 숭상하던 조선 왕조의 국왕은 □

도서의 수집·관리를 중시하였다. 이 업무가 규장각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도서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장서는 즉위 후에 주합루 옆의 서재로 옮겨졌다. 정조가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에게 □사고전서(??)를 사 오라고 명령한 것은 그의 도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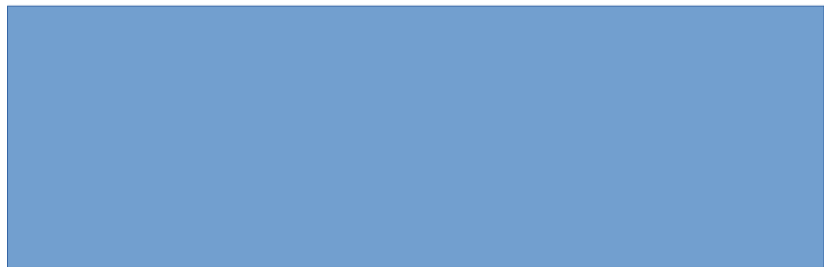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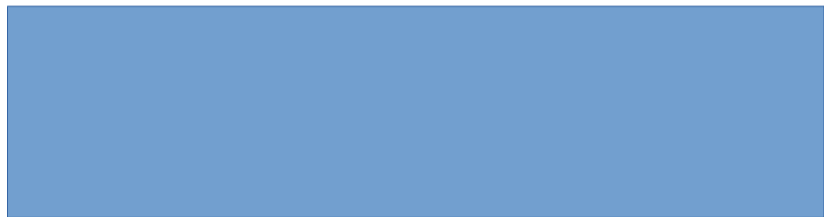
수집열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이다. 청나라의 □사고전서□ 편찬 사업은 이때 아직 진행 중이었으며, 설령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규장각의 장서 규모는 정조 20년 무렵 8만여 권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규장각에는 부속 기관으로 교서관(□?)이 있어서 서적 출판을 전담하였다. 조선 시대 정부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교서관은 본래 예조 소속이었는데,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 가까이로 옮긴 것이다. 정조는 인쇄술에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최소한 5종 100만 자 가량의 활자를 만들어 □

새 저술을 간행하였다.

규장각은 정조 왕정 체제의 중심 기구였기 때문에, 정조의 죽음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규장각 관리들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권한이 정조 사후 모두 철회되면서, 정치적 선도 기구로서의 기능은 유지될 수 없었다.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글과 도서를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는 기구로 남게 되었다.

않은 것은? [1 점]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빠져나간 듯했다.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경쟁과 대체 과정을 S 곡선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그림에 나타난 S 곡선은 기술의 수준 및 원가 경쟁력이 시간의 경과와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시장의 입지를 확보한 기존 기술은 그림에서 왼쪽에 위치하며 경쟁 기술을 나타내는 S 곡선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기존 기술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

는지 곡선의 모양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곡선은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상승한다. 경쟁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T_1) 기존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성숙기에 다다른 상태이다. 성숙기에 이르면 기술 수준의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된다. 그 이유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선이 반복되면서 원가 절감과 기술 수준 향상의 기회를 대부분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악한 편이며, 미해결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T_1 부근). 이러

한 약점 때문에 기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경쟁 기술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들 역시 경쟁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무시한다. 조지 이스트맨이 19세기 후반에 개발한 카메라용 롤필름은 당시의 표준 기술이었던 화학 코팅 유리판이 만들어 ㉠

내는 뛰어난 영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진 전문가는 물론 아마추어까지 롤필름을 완강히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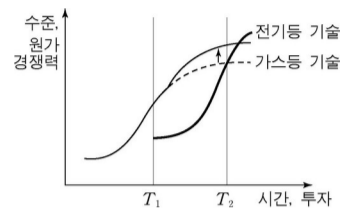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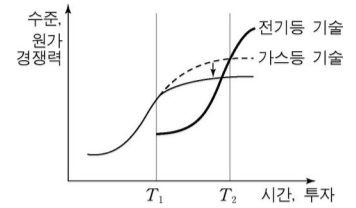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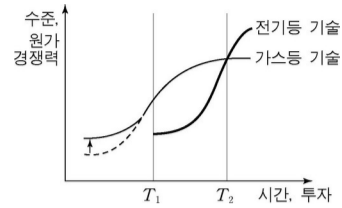
그러나 경쟁 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결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즉,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처음에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그 가속도가 붙는다. 특정 시점(T_2)에 이르면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달리 경쟁 기술은 개선될 기회가 여전히 많다. 꾸준히 개선된 경쟁 기술은 마침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오늘날 롤필름 사진은 다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롤필름은 개선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지만, 디지털 영상은 지속적인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언어 영역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경쟁 기술은 처음부터 기존의 기술과 전면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그 대신 경쟁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선도 사용자를 파고든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고속 주행의 성능은 없었다. 그러나 연비와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일부 운전자는 전통적인 성능상의 특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고객들은 신기술의 위험과 비싼 차량 가격도 꺼려 하지 않았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S 곡선 이론에 따라 성능과 원가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기존 기술을 몰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없는 것은?

않은 것은?

[1 점]

다른 것은? [1 점]

내었다.

내었다.

내려고 애썼다.

내고야 말겠다.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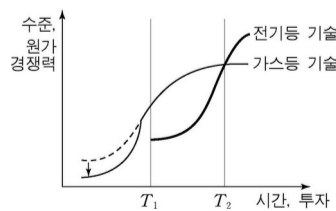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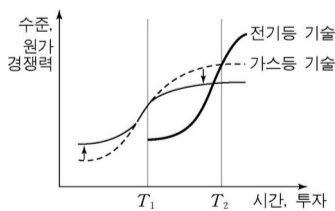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 한림의 아버지 유공은 이윽고 주파를 보내 사 급사 부인에게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공의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유공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공께서는 '소저의 자태가 국색(국?)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증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소저께서는 유공 님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가 되실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하여 주파를



과 방향이다.) [3 점]

언어 영역

기다리게 하고 손수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공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듣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 덕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덕(?禮)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유공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공이 어진 사람이다.'고 하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는 그 덕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유공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요.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였소. 손으로 직접 방적(?)하면서 여공(?△)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요.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 성식(????)이 있을 리가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하여 죄를 얻을 것이요.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청컨대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

부인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파는 돌아가 그대로 유공에게 아뢰었다.

유공은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러 말씀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유공은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하여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유공은 그 이튿날 친히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을 만났다. 사 급사 덕에 청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저 덕의 대답이 이리이러했습니다. 필시 주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덕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현이 대답했다.

"유공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 급사의 청명(?)을 흠모하며 또한 소저가 부덕(?禮)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덕에서 의당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씨 덕으로 보내어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덕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여 여사(?)의 풍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

사 급사의 청명(?)과 직질(?)

은 평소 흠모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덕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명부(?): 국가로부터 봉작(?)을 받은 부인.

* 육례(?):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잘못 정리한 것은? [3 점]



언어 영역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_____]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

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만수산(???) 드렁침이 얽혀진들 어떡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지내리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낙목한천(II???)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즐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잡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



언어 영역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1 점]

맞은 것은?



언어 영역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은유(???)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꿴 부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하여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없는 것은?

[1 점]

병목 현상이 생긴다.

어려운 것은?

언어 영역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 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테라우치(?t)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

수작이다.
"그런 별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 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낸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

촌뜨기를 꺾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 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 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밑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판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 주는 듯 싶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에 속으로 헤에 하는 □

기색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낄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정계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

그자도 물 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갠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나?)*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낸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중략)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 데다가 샅전이 헐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

놈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헐하긴 고사하고 굶어 뒤흔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타는지, 별안간에 육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흠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는 시레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 생변 : 교화되지 않은 야만인.
* 요보 :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얹잡아 부르던 말.
* 쿨리 :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언어 영역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않은 것은?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 소리, 닙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않은 것은?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아버지가 밤늦도

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끄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아닌 것은?
[1 점]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언어 영역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예요.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 이근삼, 「원고지」 -

알은 것은?

아닌 것은?

알은 것은?

어려운 것은? [1 점]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사적 질문'이라고 해 두자. 만일 우리가 생물학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구 위에 그런 생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이 의문에 부분적인 해답을 주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인데, 이는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이론이다. 지질학의 경우에도 우리는 산의 생성 과정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생성 과정, 더 나아가서는 은하계의 기원까지도 알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이 세상은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별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별이 처음 생성되던 시기의 초기 조건은 어떠한가?" 이것은 또 천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역사적 질문'이다. 별과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으며,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우주의 기원도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리학은 '역사적 질문'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여기 물리학 법칙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법칙이어야 하는가?" 물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이 없다. 물리학자는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 법칙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되었을까?", "변하기 전의 법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등등의 의문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물론 물리 법칙은 시간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물리학의 '역사적 질문'은 곧 우주의 역사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때 부터 물리학자는 천문학자나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과 동일한 주제를 놓고 대화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생물학자는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해야 하고, 재구성된 한 무리의 요인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결과들을 추론해야 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관찰 사실들을 설명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역사적 서술'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과 법칙적 설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학,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출발한 고전 과학철학자들은 그것을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고전적 관점이 편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

'역사적 서술'의 접근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유일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역사적 서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과학이 포괄하는 체계가 복잡할수록 그 체계 내의 상호 작용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이들 상호 작용은 관찰만으로 그 인과 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단지 추론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추론은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훌륭한' 설명을 두고 종종 논쟁이 야기된다. 또한 모든 '역사적 서술'은 반증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또다시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어 영역

않는 것은?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 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남창)에 26 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여창)에 15 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시조시)를 □

없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초삭대엽)'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않는 것은?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

않는 것은?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 박(16박)과 10 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북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 박과 10 박 모두 10 점(10점)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 점 16 박', '10 점 10 박' 등으로 일컫는다. 10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타점)이 10 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 박과 10 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덩), 쿵(쿵), 덕(덕), 기덕(기덕), 더러러(더러러) 등이 10 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 점 16 박 장단의 보기 (1 칸 20~40 빠르기)



10 점 10 박 장단의 보기 (1 칸 75~80 빠르기)



위의 그림에서 10 점 16 박의 빠르기를 눈

느린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한문구)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호□역려□□□오'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

면 것은? [1 점]



언어 영역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